

경북 봉화군 '봉화은어축제'

사고의 작은 변화 속에서 더 좋은 축제는 태어난다

바야흐로 '축제공화국'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전국적으로 수백여 개의 크고 작은 지역축제가 지금도 열리고 있고 앞으로도 열릴 것이다. 다만, 갈 수 있는 축제는 많더라도 가볼 만한 축제는 많지 않다는 것이 선택을 해야 하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안고 있는 위험이다. 일단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어느 축제장이라도 찾았다고 하면 그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가볼 만한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동심과 추억이 자연 속으로 스며들다

백두대간의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중앙에 위치한 봉화는 낙동강과 한강의 최상류에 있어 여기에서 발원한 1급수의 시원한 계곡물은 은어가 생육하기에 적합하다. 축제를 개최하기에 변변한 기반시설 하나 갖추고 있지 않던 댐과 보가 없던 시절, 봉화는 은어들이 낙동강 1,300리를 거슬러 올라와 9~10월에 산란하고 부화한 후 바다로 내려가 겨울을 나고 이듬해

